첨단 IT기술, 농부의 정성 만나 그려낸 농업 미래상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10월26일~11월5일

나주 전남농업기술원 일원

"이놈아, 그렇게 공부하려면 똥지게나 지어." 초등학교때 선생님들의 단골 야단이셨다. 부모들도 자식만은 똥지게를 지지 않게 하려고 어린 자식들을 도시로 유학보냈다. 농삿일이 고된 탓이었을 게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다. 천대받던 1차산업 농업이 첨단 IT기술과 융합해 4차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래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나주에서 열린다. '2017 국제 농업박람회'가 다음달 26일부터 11월5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계 농업의 흐름과 21세기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공유하게 된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해답이 농업임을 공감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슈퍼푸드' 곤충, 식량난 대안으로

국제곤충산업 심포지엄

해외 기업 6곳 참가

곤충건빵·곤충단백질스프·곤충에너지바·천연 미백화장품·반려견 간식…

2017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행사가 있다. 곤충산업심포지엄으로, 세계 식용곤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다.

28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곤충산업 정책과 기술, 산업체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제1회 국제곤충산업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다음날인 10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다.

㈜케일과 캐나다 엔토모 팜(Entomo Farms), 미국 차풀(CHAPUL), 캐나다 씨푸 푸드(C-fu Food) 등 해외 유명 식용곤충 기업 6개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대학교 등이 참여해 ▲세계 각국의 곤충산업 관련 정책과 기술 ▲국내 곤충산업 정책 및 산업 육성계획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 환경문제와 식량난, 그리고 식용곤충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심포지엄의 특징은 참가비가 있다는 점이다. 국제농업박람회 프로그램의 일부인데도 말이다. 그만큼 식용곤충 심포지엄의 가치와 유용함에 대해 자신한다는 의미일 게다.

참가비 1만원에는 농업박람회 입장권, 점심식사권, 곤충에너지바, 세계곤충식량기구 책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곤충은 풍부한 영양과 기능성 물질을 자랑하는 '슈퍼푸드'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기아 극복 대안으로, 차세대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밀웜(갈색거저리유충)의 단백질 100g은 두부의 약 661%를 자랑한다. 닭가슴살과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이 341%, 쇠고기보다 242%, 햄프시드보다 153%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개국 380개 기관 참가

생산비 절감 혁신기술 전시

농민·소비자 '상생교류마당'

◇실용성 갖춘 '비지니스 박람회'=국제농업박람회는 1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박람회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층 더 진화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세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한 비지니스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수출 구매 약정이 지난 2012년 255억원, 2015년 26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보다 확대된 314억원의 수출 구매약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 참가 해외기업은 2012년 24개국 103개사, 2015년 28개국 111개사에서 올해 31개국 107개 기업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해외 기업과 바이어의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 농업기술 담은 '첨단기술 박람회'=최첨단 해외 선진 농업기술과 세계 농업의 흐름을 분석해 한국 농업이 갈 길을 찾는 게 이번 박람회의 또 다른 목표다.

증가 추세에 있는 유기농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생산비 절감 사례, 6차산업 기술 등 해외 혁신 농업기술이 전시된다.

또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국제 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첨단 농업기술·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박람회로서의 위상 정립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해외참가자 만족도는 75.8%를 기록했고, 관람객 재방문율은 50.6%에 달했다.

전시체험마당 '맛있는 건강정원' 조감도.

◇관(官) 주도 탈피 '소통 박람회'=관(官)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 행사로 변화·발전을 꾀한다. 아이쿱생협·슬로우푸드협회 등 소비자단체와 농촌체험관광협회·축산단체 등 생산자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상생교류마당'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연다.

◇농풍(農風)·혁신기술 등 5개 마당 전시=이번 박람회는 놀이와 학습,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 '농풍(農風)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 등 5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농풍마당'은 농업을 이해할 수 있게 농업역사관, 청년농업관, 농정홍보관이 배치된다. 농업역사관은 세계농업의 신화와 역사, 미래농업, 흙·물 체험 등의 콘텐츠를 전시한다.

'전시체험마당'에서는 맛있는 건강정원, 아열대식물원, 행복한 농물농장, 농작물 수확체험장 등의 콘텐츠가 마련된다. 맛있는 건강정원에는 한국인의 텃밭, 휴식의 정원, 쉐프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행복한 동물농장에는 가축동물에게 먹이주기, 애완동물 이해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농작물 수확체험장에서는 관람객들이 단감, 고구마·땅콩·순무 등을 수확해 기쁨과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혁신기술마당'에는 유기농업관, 기술농업관, 곤충산업관 등을 설치한다. 특히 곤충산업관에는 곤충용도별 최신 산업화 기술정보와 곤충 체험장 등이 마련된다. '홍보판매마당'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장과 국내·외 기업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운영된다.

이밖에 축산스마트팜 국제심포지엄, 기후변화대응 농업환경 조성 등 학술행사와 알리바바 B2B 사업설명회·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도 마련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방수, 단열 이중효과!
▶냉·난방비 절감효과!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 062-531-3530